



일주문



日 부시학원 15돌 법회 참석
해성 도선사 회주는 청담학원의 자매결연 학교인 일본 부사학원의 15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키 위해 15일 출국했다.



부산 삼광사 주지 말아
도원 천태종 前 교육부장 스님은 5일 부산 삼광사 주지로 발령 받았다. 취임식은 2월 1일 삼광사에서 열린다.



선원사 4천일 지장기도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는 16일 선원사에서 '선원사지복원 4천일 지장기도 대법회'를 봉행했다.



광명선원 8돌 기념법회
초격 서울 광명선원장 스님은 7일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을 증명법사로 광명선원 개원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와 카오스' 특강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는 18일 저녁 7시부터 서울 논현동 무불선원에서 '불교와 카오스이론'을 주제로 특강한다.



전주광역시도회장 취임
김백호 전주광역시지역도회장은 4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취임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대불칭 회장 취임
김규범 대한불교 청년회 중앙회장은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회장 취임식'에서 제 2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동화작가 정채봉 씨 별세



<오세암>을 쓴 동화작가 정채봉 씨가 9일 지병인 간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55세.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많이 써 '성인동화'라는 말을 만들어 냈던 정 씨는 전남 승주에서 태어나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꽃다발'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대한민국 문학상, 소천 아동 문학상, 세종 아동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대표작 <오세암>은 오세암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쓴 동화로 다섯 살 소년의 성불이야기를 다뤘다. 동화의 소재와 주제를 크게 확장시킨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아 새책 문학상을 받았다.

“자비의 등 손수 만드세요”

신사년을 뛰는 우바이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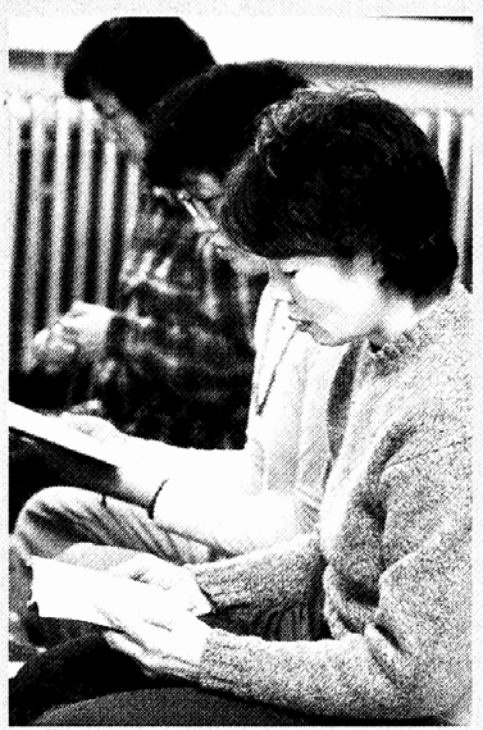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날이 아직 뇌 달이나 남았는데도 조계종 불족위원회 박상희 간사(44)는 바쁘다. 조계종 총무원청사 1층에서 9일부터 시작된 전통등 감축회 현장을 찾아 이것저것 챙기느라 한겨울인데도 외투조차 벗어버렸다.
“올해 불족행사도 연등축제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등(燈)은 불교의 성스러운 상징하는 장엄물인데, 아직도 불자들 손으로 만든 것보다 공장에서 파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박 간사는 등문화 대중화를 올해의 화두로 삼고 있다. “불자들이라면 당연히 등을 밝혀야죠. 등은 부처님께 올린 공양물이며, 자비를 널리 펼쳐겠다는 서원의 표시입니

불족위 박상희 간사

다”라며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박 간사가 등의 중요성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이유는 또 있다. 어떤 등을 만들까 고민하고 함께 만드는 과정이 축제이기 때문이다. 기획부터 제작에 이르는 과정에서 스님과 신도, 신도조직들간에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커진다는 것이다. “한 사람에서 하나의 장엄등을 만든다면, 등을 만드는 반 년 동안은 사찰에 축제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 불족행사를 ‘연등축제’로 이름붙인 것은 96년부터.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 월드컵을 앞두고 있어 올 연등축제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연등축제는 여타 축제와는 달리 불자들 스스로 전통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축제의 전형이 되고 있



다. 연등축제와 함께 거리행사도 박 간사를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축제는 주객의 구별없이 스스로 참가해서 신나게 노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족위원회는 축제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거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박 간사의 축제론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수험생 부모의 기도

대입 눈앞의 수험생 부모들
9일 서울대학교 총불교학생회(회장 이상명) 동아리방의 부처님 앞에서 10여명의 수험생 부모들이 모여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하루종일 추위에 떨면서도 교내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총불교학생회는 동아리 방을 기도 공간으로 제공한 것. 또 이날 수험생들에게는 재학생이 됐을 때 불교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게 친절환 상담도 해주었다.
고영배 기자

인사
◇부산 삼광사= △총무: 덕재 △교무: 도웅 △재무: 거홍 스님
◇동국대= △경주 한방병원 장: 김갑성 △의료원 기획관리실장: 양창현

“한-중 사찰결연 교류 강화”

중종교학회 고문 추대 김재일 법사

“한-중간 불교문화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에 주력하겠습니다”
6일 중국인민공화국 종교학회 고문으로 추대된 김재일 법사(동산불교대학 이사장)는 “한-중간 불교문화교류를 통한 민간협력에 기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피력하고 “동산불교대학에 중국학과를 신설해 중국문화 전문인력을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법사는 “중국에서는 인도에서 불교가 전해지니 2천년을 지나는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준비하며 새롭게 부상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다”며 “문화혁명이후 50여년간 쇠퇴기를 지나는 중국불교가 한국불교를



교를 모델로 일어서려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양국 불교간 협력은 함께 공생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법사는 “정토불교의 발상지인 중국여산 동림사와 자매결연을 통한 양국간 염불운동도 전개하겠다”며 “중국진출을 통한 북한과의 연계방안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토론과 사색의 네티공간 만들터”

천리안 불동 김용태 회장



“게시판을 활성화해 회원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너른들판’과 ‘장경각’에서 불교소양을 높여 침체된 천리안 불교동호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립 29일 천리안 불교동호회 11대 대표 시삽으로 선출된 김용태(32·동부한글근무) 씨는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김 회장은 불교 시사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인 ‘너른들판’의 침체가 천리안 활성화의 걸림돌이라 생각해 시삽이나 운영진이 좋은 토론 주제를 찾아내고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발제나 문제 제기 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수년간 선배들의 원력과 노력으로 많은 불교관련 자료들이 축적된 ‘장경각’이나 공부방을 통해 회원들이 불교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전국 모임 및 오프라인 모임을 활성화해 침체된 천리안 불교에 생기를 불어넣을 생각이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ania.com)



부산불교신도회 신년 하례법회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강선태)가 주최한 신년 불교계 인사 신년 하례회가 5일 코모도 호텔에서 열렸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성오스님, 안상영 부산시장 등 5백 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강선태 회장은 “부처님의 정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리아타의 실천행으로 화합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경기포교사단 신사년 정진법회

서울 경기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은 6-7일 양주 회암사에서 서울·경기포교사단 포교팀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맞이 발원정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기병 단장은 “올해 포교현장에서 활동하는 포교사 지원 및 조직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인 의식, 상담, 스피치, 사찰안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선우 청소년 겨울 캠프

우리는 선우이사장 박광세는 5-8일 충북 음성 청소년수련원에서 제13회 청소년 겨울캠프를 실시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전래놀이, 직업법계놀이, 영화를 통한 불교의 재해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소년소녀 가장을 포함한 청소년 50여명이 참석했다.



대원사 기금마련 만등불사 입제

조계종 대원사주지 법지는 9일 불우이웃 돕기 및 정화기금 마련 천일기도 만등불사 대법회를 입제했다.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법산스님을 법사로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 법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을 바로 있는 바른 행”이라며 “좋은 뜻으로 시작된 만등불사가 회향되어 불우한 이웃과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Large advertisement for the 2001 Buddhist New Year Conference. It includes the title '국운융창과 국민화합을 위한 신년대법회', dates (Jan 19, 20-21), location (Sejong), and details about the program, speakers, and registration. It also features a table for the 2001 Buddhist University of Muwon 2nd New Student Recruitment.